



2021년 1월 3일(제1016호) 주님 공헌 대축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군종 장교로서 각 부대의 요청에 따라 인성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각 부대의 사정에 최대한 맞춰서 해병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인성교육을 진행할 때도 있지만, 군종부의 지침에 따라 지정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찾아가는 행복마차’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병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5가지 사랑의 언어 테스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인간관계에 관해서술한 게리 채프먼의 책 ‘5가지 사랑의 언어’의 내용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인정하는 말
- ② 함께하는 시간
- ③ 선물
- ④ 봉사
- ⑤ 스킨십

해병들에게 이 다섯 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설명해주고 나서 30문항이 담긴 테스트 용지를 나눠줍니다. 30문항에 대한 답을 체크하다 보면 각자가 선호하는 사랑의 언어가 도출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군대니 다섯 가지의 언어가 비슷한 비율로 나오리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선물”

유독 ‘선물’을 선택한 해병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상호 간의 관계적 의미와 상징성, 그리고 선물을 전달하는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결과에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공헌 대축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 속에서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몰약을 예물로 봉헌합니다. 각각의 예물이 담고 있는 의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방에서부터 구세주의 탄생을 알아보고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순례했던 그들의 노력과 마음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동방박사들만큼은 아니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을 마련해 봅시다. 어떤 선물을 할까 생각하는 것부터, 정성을 담아 전달하고 선물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떠올려 보는 것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물의 값어치가 아닙니다. 그 소중한 시간들 안에서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현신(대니스) 신부
복병(해병6여단) 성당 주임

- 제 1 특 시** 이사 60,1-6
- 회 답 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제 2 특 시** 에페 3,2,3ㄴ.5-6
- 복음 판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 복 음** 마태 2,1-12
- 영 성 제 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내 번째 시한

예수 마리아 요셉

르그레즈와 신부님께

요동(遼東) (백가점)에서, 1842년 12월 9일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우리가 아직 마닐라에 있을 때 신부님께 편지를 올렸으나, 그 동안의 우리 여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려 신부님께 다시 편지를 올립니다.

마침내 우리는 마닐라를 떠나 순풍을 따라 항해하여 대만(臺灣) 섬까지 다다랐으나, 거기서부터는 작은 폭풍우와 역풍을 만났습니다.

신부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섬은 길이가 6백 리로서 초목과 산림이 울창하고 경치가 매우 좋을 뿐 아니라 토지도 매우 비옥하게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높은 산(즉 新高山)도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흰 눈이 덮여 있습니다. 이 섬의 주민들은 특유한 방언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가 우리에게 생선을 팔려고 다가왔는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나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섬을 떠나 며칠 지나서 주산에 닿을 내렸습니다. 이 주산은 산이 많고 메마른 많은 작은 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내 구경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부임하신 라자리스트¹⁾ 신부님들을 만나볼 겸 해서 주산 시내에 몇 번 들어갔는데, 원주민들 외에는 신기한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중국인들은 원주민들을 ‘검은 악마’라고 부르고 멸시하여 왕처럼 손에 지팡이를 잡고 겁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산에서 약 두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동안에 영국인들이 남경을 탐험하기 위하여 출발하였으므로 우리도 그들을 따라 4일 걸려 양자강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강 중간에는 송명(Tchong-ming, 崇明)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섬이 있는데, 갈대와 초목과 숲이 뽀뽀이 우거지고 주민도 많으며, 섬 이름과 같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작은 개울들이 사방으로 흘러서 대체로 푸르르고 쾌적하며 비옥한 평야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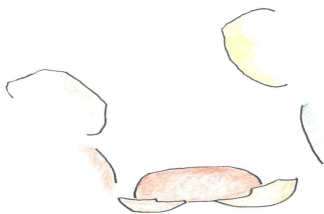
1) 라자리스트회 : 즉 “선교 수도회”(Congregatio Missionis). 1625년 빈첸시오 아 바오로(Vincentius de Paul)가 프랑스에서 창설한 수도회.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받아 들고.

그 내면의

깊은

시선은,

마음을

선물이 아닌,

봐야 합니다.

주는 이의

눈에

선물을 받을 때는.

두어야 합니다.

상화이야기

동방박사의 방문



로지어 핀 데이 바이엔, 1455년 작
나무 위 유화, 138x153cm / 빌테 피니코텍 미술관, 독일 뮌헨

거의 무너져가는 집/헛간 같은 곳에 앉아 계신 성모자와 성요셉, 그리고 이를 방문하는 동방박사를 그린 그림으로, 3명의 동방박사는 각각 노인, 중년, 청년으로, 그리고 각기 다른 인종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이들은 이국적인 의복과 장신구, 수행원, 혹은 동물들을 동반/수행하기도 하는데, 그림 우측에서도 이들을 수행하거나 혹은 이들을 구경하기 위해 몰린 인파가 보인다.

본 그림에서도 황금, 유향, 몰약을 바치고 있는 동방박사와 이를 바라보시는 성모님(다가올 수난을 알고 계시기에 표정이 밝지만은 않으시다.)과 관객 혹은 동방박사를 바라보는 예수님이 주로 그려지는데, 경건하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자신을 조용히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참된 의미를 묵상해 보자.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주님 공현 대축일: 통일대 김창환 신부

◆ 교구장 동정

- 시무식
 때·곳: 1월 4일(월) 10:00, 교구청
- 춘천교구 제8대 교구장 김주영 주교 서품 및 착좌식
 때·곳: 1월 6일(수) 14:00, 주교좌 죽림동 성당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